

지역 소식 통

부안 상서면, 트랙터

제설 자원봉사자 간담회

부안군 상서면(면장 채연길)은 2일 트랙터 제설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에서 동절기 제설 준비 간담회를 가졌다.

상서면은 면민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기간으로 정하고 29개 마을에 대해 트랙터 33대와 연화칼슘 등을 활용한 철저한 제설 작업을 계획했다.

상서면 제설 자원봉사단은 각 마을에 있는 개인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이용 지역 주변의 도로뿐만 아니라 취약한 마을 골목까지 눈을 제거하는 제설 작업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채연길 면장은 “평소 제설 작업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작업시 안전운행과 신속한 제설 작업을 부탁드립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소방서, 다중이용

업소 안전 관리 강화 요청

고창소방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및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동식 난로로 인한 화재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이 제한되며, 출입구·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항상 개방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고창소방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 여부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식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정전을 모티브로 한 목구조 도서관

전북 고창군이 3일 고창황윤석도서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고창읍 월곡지구에 연면적 3,815㎡,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어졌다. 지하 1층은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층은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황윤석 전시공간, 2층은 일반자료실과 책마루, 무인북카페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로 팝업북 특별 전시와 스탬프 투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



양하게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도서관 설계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도서관은 왜 있어야 하는가의 주제로 도서관과 도서관 건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해 공간에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스탬프 투어는 12월 한 달간, 팝업북 특별 전시는 1월8일까지 운영되며 12월9일에는 강원국 작가, 20일에는 미우 작가의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통한 대출 및 반납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명화 갤러리, 자료 검색시스템, AR로봇 등 스마트한 최신 ICT 장비를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도서관은 개관일부터 평일은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행정구역과 산림 소유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방제 시스템이 정읍에 구축됐다.

통합 방제 시스템 정읍에 구축

정읍시-국유림관리소, 소성면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협약

행정구역과 산림 소유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방제 시스템이 정읍에 구축됐다.

정읍시는 지난 2일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은 소성면 일대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는 공동 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단기간 내에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로, 적기에 방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공동 방제 지역으로 지정된 소성면 일원(2,004ha)은 지난 2018년 11월 관내에서 최초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이다. 최근 인접 시·군 경계까지

병해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공동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성면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산림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 따지지 않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주도해 통합적인 예방과 방제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제의 시작지대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양 기관은 단순한 방제 작업을 넘어 정보 공유에도 힘을 쏟는다. 감염목의 발생 위치부터 예방 현황, 방제 진행 상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연말 특별 행사 풍성

정읍기적의도서관이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도서관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도서관은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책 놀이 체험’과 ‘인형극 공연’, ‘그림책 읽기 이벤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먼저 매주 토요일인 6일, 13일, 20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크리스마스 가족 책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참여 가족들이 성탄절

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뒤, 크리스마스 리스(장식용 화환)나 오르골, 북, 트럼펫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다.

14일 일요일에는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특별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극단 씨앗이 선보이는 인형극 ‘너구리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산타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너구리의 최충우 볼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와 함께 삶의 소중한 교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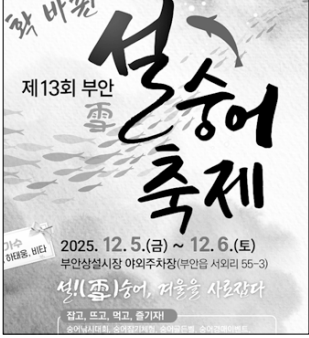
부안군, 제13회 설송어축제 5일 개막

‘설송어 겨울을 사로잡다’ 주제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서

부안군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2일간) ‘설(雪)송어! 겨울을 사로잡다’를 주제로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서외리 55-3번지)에서 제13회 부안 설(雪)송어축제를 개최한다.

부안 설(雪)송어축제는 2007년 첫 개최 이후 군민과 전통시장 상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송어 오마카세, 송어 낚시대회, 송어 잡기 체험, 송어 골든벨, 송어 경매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송어회, 추억의 분식, 파베기, 군고구마 등 먹거리 부스



도 마련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제20회 자원봉사자대회 성료

정읍시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13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는 등 그간의 헌신을 기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는 이날 연지아트홀에서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나눔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에는 총 13명(단체 포함)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 표창(개인 2명, 단체 1곳) △정읍시장 표창(개인 4명, 기관 2곳) △정읍시의회 의장 표



창(개인 2명) △의사장 표창(개인 2명)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행사는 화합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